

# “차등 전기요금, 균형발전·지방소멸 극복에 맞춘 접근 필요”

### 전남도, 전문가 전략회의 열어 차등 전기요금제 설계 방향 논의 ‘지리적 인접성’ 보다는 ‘전력 자급률’에 기초한 차등화 목소리

전남도가 정부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본격 시행에 대비해 21일 전문가 전략회의를 열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에 전남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전남에 유리한 차등 전기요금제 설계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 전남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이순형 동산대 교수, 이재형 목포대 교수 등이 참석해 기관별 의견과 전남도 대응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부는 분산에너지특별법에 규정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2025년부터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에 전기를 판매하는 도매가격 시장에서 전력가격 차등을 우선 시행하고, 2026년부터 한국전력이 기업이나 가정에 전기를 판매하는 소매요금 시장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별 도매가격제를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3분할로 나눠 시행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으로 발전소를 이전하고, 데이터센터·이차전지 같은 전력다소비 기업은 지방으로 분산하겠다는 것이 정부 복안이다. 하지만 도매요금 적용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도로 크게 나누면서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있고,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한다’는 차등요금제 도입 취

지와도 어긋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순형 동산대 교수는 “지리적 인접성을 기준으로 도매 전력가격을 정할 경우, 분할 단위가 넓어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가능성을 클 뿐만 아니라, 전력 자립률이 높은 전남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순형 교수는 기존 지리적 인접성 기준에서 벗어나 전국 사·도별 전력 자급률을 기준으로 상위권(전남 등), 중위권, 하위권으로 구분해 차등요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이는 사·도 간 합의 가능성을 대폭 높여 차등요금제의 지역 연착륙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별도 국가 재정투입 없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극복을 이룰 기회로, 이런 맥락의 철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전력다소비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인구 감소지역에 한해 최대 20%까지 파격적인 전기요금 차등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앞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적화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의 전력 자급률을 높여려는 차등요금제 본래 취지에 맞게 정부안이 설계되도록 자급률이 높은 사·도와 공조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화려한 가을의 끝자락 21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정문의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울긋불긋 물들어 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FC “ACLE 참가 예산 10억 삭감 유감”

### 시의회 “절차 무시에 경고 필요”

광주시의회가 프로축구 K리그 광주FC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참가 예산 10억 원을 전액 삭감하자 구단 측이 곧바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노동일 광주FC 대표이사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가 의회에 편성을 요구했던 ‘광주FC ACLE 지원금 10억 67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노대표는 “광주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알면서도 광주시에 예산을 요청했던 것은 광주FC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광주시민의 자긍심을 북돋는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건지 도움을 주지 않는 시의회의 결정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가 광주FC에 지원하는 예산은 연 100억 원 규모이며, 구단 측은 ACLE 진출로 인한 해외 체류비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24억원, 올해 30억원을 은행에서 대출 받은 상황이다. 광주FC는 특히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도입한 ‘K리그 재정 건전화 정책’에 따라 2030년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1군 무대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높다.

광주FC는 올해 초 과대 계상한 예산안을 제출했다가,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선수를 영입할 수 없는 제재를 받기도 했다.

프로축구연맹은 광주FC 재정 상황을 주목하며

25개 구단 가운데 유일하게 광주FC만 이달 말까지 올해 가결산과 내년 예산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프로축구연맹은 다음 달로 예정된 재무위원회에서 광주FC가 기준에 맞는 예산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인건비 상한선을 지정하는 등 조처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광주FC 예산안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선수 영입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FC 측은 “지난해 광주시의회 예산 심의가 끝난 직후 ACLE 진출이 확정됐고 비용 40억원 중 10억원의 지원을 시에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시의회는 협의 없이 비용을 사전 사용하고 보존해달라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당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할 가능성도 있으나, 시의회 내부에서는 절차를 어긴 광주FC에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명진 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지난해 12월 ACLE 진출이 확정돼 시가 상반기 추경 때 예산을 요청할 수 있었다”며 “비용을 사전에 모두 소진하고 보존해달라고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이며, 의원들 사이에서 공식 절차를 밟지 않은 데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목포대·순천대 통합 합의 이번엔 ‘전남 국립의대’ 설립

###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적극 검토”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합의 이후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전남도 행보가 분주하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과 만나 오는 22일까지 ‘통합의대’를 추천하면 2026학년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요청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 지사는 이날 박 차관에게 “목포대·순천대 통합은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과 대학을 살리는 전국 최초의 글로벌 거점 국립대학 모델이 될 것”이라며 “통합의대는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학을 정해달라’는 정부 요청을 충실히 이행한 방안이자 필수요 강화 등 정부 정책을 실현하고 지역의 상생·통합정신에도 부합하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남도는 22일까지 ‘통합 의과대학’을 정부에 추천할 것”이라며 “대학에서 통합 의과대학 명의로 신청하면, 정부에서 2026학년도에 통합 의과대학이 개교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요청된다”고 요청했다.

박민수 2차관은 “행정적 지원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시, AI 스타트업 글로벌 도약 돕는다

### AI 스타트업 성과공유회 개최 기업 성장 성공 사례·비전 발표

광주시가 초격차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혁신적 성과를 조망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 도약에 힘을 보태는 행사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21일부터 이틀간 진도 솔비치 리조트에서 ‘2024 AI 스타트업 성과공유회(AI Boom-up Day)’를 개최하고, AI 창업과 기업 성장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이하 AI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창업 지원 성과를 공유하고, AI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AI 제품·서비스 상용화 지원 사업’과 ‘AI 스타트업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큰 성과를 거둔 ㈜호미에이아이, 디지털로그 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 ㈜그린에이아이, ㈜투비유니콘, ㈜메디아이플러스 등 5개 우수 기업이 성공 사례와 미래 비전 등을 발표해 관심이 집중됐다.

이들 기업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적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과 사업화에 성공하고, 미래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국내외 시장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호미에이아이는 기존의 T21 생생 프레임워크를 뛰어넘어 입력 이미지를 기반으로 새롭게 설계한 AI 프레임워크 ‘EBDM’을 사업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디지털로그 테크놀로지 주식회사는 AI 기반 클라우드형 통합 마케팅 플랫폼을 개발하고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으로 진출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인증을 획득하는 등 사업영역을 해외로 넓혀가고 있다.

㈜그린에이아이 역시 자율주행 잔디 관리 로봇과 잔디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고,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교육 중심 AI DX(디지털전환) 모델을 개발한 ㈜투비유니콘은 생성형 AI를 통해 교사의 업무를 보완하는 등 교육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메디아이플러스는 바이오벤처를 위한 경쟁력 분석 AI 솔루션을 개발해 북미 시장 진출과 투자 유치 등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오상진 AI산업융합사업단장은 “앞으로도 창업 지원과 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 첨단우리병원



###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